월요광장

다시 우화를 읽는다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우화는 보통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야기란 사람을 위한 일이니, 우화는 결국 동물을 통해서 사람 이야기를 한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사람아, 사람아'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할 때면 우화를 다시 읽는다.

'사람아, 사람아'는 중국의 작가 다이 호우잉의 유명한 소설 제목이다. 오래전에 읽었음에도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한 줄이 여전히 선명하고 깊게 남아있다. 이 작가는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일으키는 사단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가세하는 사람들, 여기에 머리가 굳은 사람들이 합세함으로써 만들어 내는 혼란이라는 의미다. 이런 부류 사람들이 합해지면 단순하고 자명한 일이 고통스럽게 복잡해진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난장판이 일상이 될 때 '사람 되기'를 다시 생각하기에는 우화만한 것이 없다.

카프카(1883-1924)는 1917년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라는 소설을 썼다. 이 작품은 '변신'과는 반대로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다. 피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원숭이가 자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애초에 피터는 아프리카 야생에서 살던 원숭이다. 피터는 어느 날 물을 마시려다가 밀렵꾼들의 총에 맞고 증기선에 실려서 유럽으로 옮겨졌다. 이제 자유로운 야생으로 갈 수 없게 된 피터는 동물 우리에 갇혀서 죽거나 동물원에 갈 운명이다. 이 상황에서 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 즉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자유가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현실 속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가 지금 갇혀 있는 우리를 탈출하는 것이니 목숨을 걸어야 한다. 피터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서 탈출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 흉내를 내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악수를 가장 먼저 배운다. 자신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악수, 이 얼마나 영리한 원숭이인가.

이제 피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인간화'한다. 이 과정이 원숭이인 피터에게는 지옥 같은 일이다. 그런데 피터가 '사람'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참 민망하고 씁쓸하다. 사람 되기 위한 조건이 고작 침 뱉기, 담배 피우기, 마지막으로 술 마시기다. 카프카는 이를 통해서 사람이란 원숭이 피터가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무책임하고 왜소한 존재인가를 말하려는 것일까. 침 뱉고, 담배 피우며, 술 마시기가 동물에서 사람이 되는 길이라니.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면은 원숭이인 피터에게는 자기 기만이며 자기 배신이다. 피터는 살기 위해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일 뿐, 사람이 아니며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독한 노력 끝에 축제가 열리던 날 피터는 마침내 술 마시기에 성공한다. 바로 이때부터 피터는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사람들의 언어가 사실은 술주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인가. 사람 간 대화가 사실은 공허한 술주정에 불과한가. 심장의 얼음을 깨는 도끼 같은 카프카적 날카로움에 뜨끔하다. 사람처럼 변한 피터는 이제 연회와 학술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람만큼 바쁘게 산다.

그렇다면 피터는 '사람'이 되었고, 자유를 되찾았을까. 아니다. 피터는 여전히 사람의 모습을 하도록 사육당한 원숭이일 뿐이다. 주어진 상황에 길들여지고, 오직 살려는 본능적 욕망과 강요된 규칙에 순종하는 피터, 그가 배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피터가 배운 자유는 쉽고 편한 것을 모방하는 기술일 뿐 삶을 세우고 지탱하는 그 치열한 가치로서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터가 가히 침을 뱉고 술 마시기와 언어 사용에 능숙할수록, 깊이 사육당한 흔적과 모방 된 술주정 언어의 껍데기들은 오히려 피터의 정체성을 더 드러낸다. 그 누구도 자유의 가치를 실천 없이 모방과 사육당하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수필의 향기

청바지를 입는 이유

김 향 남
수필가

지구촌에서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옷이 있다. 처음엔 광부들의 작업복으로 출발했으나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며 패션으로 거듭난 옷이다. 영화배우 제임스 딘과 로큰롤의 황태자 엘비스 프레슬리,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크버그 등의 유명인들도 즐겨 입는다. 덕분에 젊음과 자유, 반항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IT 패션의 대명사로 꼽히기도 했다.

그렇다. 바로 청바지 이야기다. 청바지가 세상에 등장한 지는 무려 170년이나 되지만, 그 인기는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 중의 누구도 청바지 한 번 안 입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번 입어봤다고 안 입는 것이 아니라, 입고 또 입고 사고 또 산다. 도대체 그 뻣뻣하고 질긴 청색의 바지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일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다 알다시피 청바지는 그 탄생부터가 매우 기발했다. 청바지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천막 천 생산업자였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한다. 1850년 미국 서부는 황금을 캐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전 지역이 천막촌으로 변해가는 시기였다.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천막 천 생산도 호황기를 맞았다. 그런데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꽉 막히게 되고, 그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어느 날 홧김에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천막 속에 광부들이 모여 앉아 바지를 꿰매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무심코 지켜보던 그 순간 그는 유레카를 외친다. 맞아! 이거야. 바로 천막 천으로 바지를 만들겠다는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고 시장에 첫선을 보인 제품은 큰 인기를 얻었다. 하마터면 폐기 처분될 뻔한 재고품들이 변신의 날개를 달게 된 순간이었다.

엊그제는 오랜만에 1박 2일 모임을 다녀왔다. 모여서 공부도 하고 회포도 풀고, 세미나도 하고 재미나게 즐겼다. 거기 참석자 중에 C 선생님이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분도 손수 세 시간을 운전하고 오셨다. 그것만도 대단하다 싶은데, 다음날엔 엄지 척을 해야 할 만큼 상큼 발랄한 일이 벌어졌다. 왜냐구, 짐작하겠지만 바로 그분의 의상 때문이었다. 어제 세미나 때 입었던 것과는 확실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절모에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 우선 복장이 너무나 자유롭고 유쾌해 보였다. 누구도 팔순의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젊은이 못지않은 차림새가 작고 다부진 그분의 체구와도 잘 어울렸다.

그분은 별로 지치거나 지루한 기색도 없이 이틀간의 일정을 거뜬히 소화하고 사뿐히 오던 길로 되돌아가셨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찢청'으로 증명해주신 거다. 물론 그분의 '찢청'은 허벅지나 무릎이 훤히 드러나거나 실밥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과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소심하다 싶게 절제되어 있었다고 할까. 찢어진 자리를 감침질로 막음해 놓은 솜씨에는, 자유는 누리되 방종은 금물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는 듯도 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대충 입지 뭐, 하고 입는 옷이 청바지이기도 하고, 멋 좀 내볼까? 아니 좀 젊어져 볼까? 작정하고 입는 옷이 청바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장 흔하게 입는 것이 청바지인데 어떤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다가도 어떤 순간엔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청바지이다.

그러고 보면 청바지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옷,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세련된 옷, 가장 보편적이지만 가장 고유한 옷이지 싶다. 모두가 다 입는 동질성의 옷이기도 하고 극히 내밀한 개별성의 옷이기도 하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저항과 거부 혹은 불안과 유혹을 불러오기도 하는 이율배반의 의상이기도 하다.

그날 그분의 청바지도 그런 것 같았다. 이를테면 격식을 지키면서도 격식을 깨트리는 파격의 자유, 같으면서도 다름을 추구하는 자기만의 멋을 청바지라는 장(場)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해 낸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대를 불문하고 청바지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융통성과 창의성, 새로움의 미학을 추구하며 '자기다움'의 개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물 같고 바람 같은 옷.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청바지를 입는 것이 아닐까.

기 고

사라져 간 기술들이 남긴 것

한 근 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교수

타자기의 자판을 힘을 주어 눌러 본 기억이 있는가.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타자기.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분위기 있는 카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거나, 고물상이나 골동품 가게로 가야만 볼 수 있다. 그도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지하실이나 벽장에 쳐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타자기를 직접 보기에는 여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아직 디지털 기기들이 흔해 발에 차이지 않았던 어린시절. 찰칵찰칵 타자기의 기계음은 필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 신기한 기계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타자기처럼 내부의 기계 부품 하나하나가 훤이 보이고, 동작에 있어 아름다운(?) 기계음을 내는 기계장치는 필자에게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만 해도 컴퓨터 보급률이 낮고 가격은 매우 비쌌다. 그래서 당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를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대신에 타자기가 흔히 사용되었다. 그래서인지 타자기 타이핑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많아 취업을 목적으로 많이들 배웠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다 보니 타자기를 흔하게 볼 수 있었고 필자도 어린시절 한 대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컸다.

조금 과장하자면 타자기는 컴퓨터의 사촌쯤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문자 입력 장치인 키보드는 타자기의 글자판 배열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판을 두들겨 문자를 작성하는 일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누가 손글씨를 잘 쓰는지를 겨루는 경필 쓰기대회도 있었다. 그리고 과거 사기업이나 관공서에는 손글씨로 문서를 작성하는 서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과거 타자기의 등장은 글쓰기는 물론 산업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었던 혁신적인 발명이었다. 펜을 손가락에 쥐고 꼭꼭 힘을 주어 글을 쓸 필요가 없고 통일성 있게 문자가 기록되어 있기에 누구나 쉽게 문서를 읽을 수 있었다. 또 글을 쓰는 속도가 일반 필기에 비해 상당히 빨라 사무환경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사무기기였던 타자기를 전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생산했던, 인도 뭄바이의 고드래지 앤 보이스사(Godrej & Boyce Mfg.Co)가 경영 악화로 2011년 폐업하게 된다. 현재 타자기를 생산하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최첨단 과학기술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계장치지만 타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여전히 사용되는 곳이 있고 수많은 애호가들이 존재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간다. 지금은 다양한 디지털 워드 편집기가 우리의 주요 글쓰기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연동하여 손쉽게 오타를 수정하고 문서의 레이아웃을 조정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 그 결과 타자기는 생산성 따지는 사무실과 교육혁신을 외치는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 등에서 볼 수가 없다.

타자기는 더 이상 일상적인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의 기술적인 DNA는 지금도 기술이라는 생태계에서 또 다른 기술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대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은 시대와 함께 발전하며 사라지기도 한다. 사라져 간 기술들은 과거의 유산을 담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기술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과거라는 밑거름으로 파생된 것들의 결과들이다. 그것을 통해 인류가 늘 그렇듯 멈출 수 없는 무한동력처럼 나아가고 있다. 과거의 것들이 느리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社 說

내홍 빠진 민주당…분열 딛고 환골탈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당권을 쥐고 있는 친명(친 이재명)계는 비명계의 반란으로 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찍어내기'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분당이라는 최악의 위기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 발급으로 구속된다면 현 지도 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내분이 더해지면서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는 세를 불리며 방탄 이미지를 벗어났다며 새로운 지도 체제를 통해 당이 거듭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우며 이 대표 결사옹위 태세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를 상대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이 대표 구속에 대해 징계를 통한 공천 배제 등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이 화합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 대표가 내분 수습을 위해 비명계를 끌어 안아야 하지만 친명계와 개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숙청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계파간 갈등으로 내홍이 계속될 경우 내년 총선 승리의 필수 요건인 중도층 민심 이반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측이 극한 대립을 이어간다면 야권발 정계 개편론으로 번질 수 있고 결국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민주당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민주당은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 '첫 삽'…역사 품은 공간으로

1980년 오월 항쟁의 현장이었던 옛 전남도청이 본격적인 복원공사에 들어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건물이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원형 복원에 나선 지 8년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추진단은 10월 중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496억원이며 연면적 14만 480㎡, 대지면적 8만 3004㎡ 규모다. 해체·재시공 등 건물 공사는 2025년 6월까지 이어지며 2025년 하반기까지 전시 콘텐츠를 채워넣는 작업을 마친 후 개관할 예정이다.

복원 사업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 도청 회의실, 상무관, 전남도경찰국 본관, 민원실 등 6개 동을 광주항쟁 당시인 1980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추진단은 "광주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원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가 도청 복원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숱한 논의를 거쳐 복원이 시작된 만큼 옛 전남도청이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간을 채울 콘텐츠가 중요하다. 단순히 오월 광주를 재현하는 데 그치는 박제화된 역사로는 어떤 감동도 전하지 못한다. 복원되는 공간들이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의 핵심시설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필요하다.

새롭게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이 1980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민주화를 견인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때 광주의 오월 정신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無 等 鼓

금동관과 마한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관(金銅冠)은 최고 지배자나 정치체의 존재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2020년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지방기념물 제83호)에서 금동관편(金銅冠片)이 출토됐다. 금동관 조각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 제295호) 출토 이래 마한시대 금동관의 실재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됐다. 금동관편은 금동대관(金銅帶冠·띠 모양의 금동관) 둥근 테의 앞쪽과 양측 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을 세운 형태로,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매우 유사해 주목받았다. 쌍무덤 금동관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권역에서 발굴된 금동관은 백제와 연관지어 해석된다. 백제의 왕이 5세기 말 나주지역 신하에게 준 게 신촌리 금동관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전남 지역이 서기 369년 백제에 병합됐다는 통설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전남지역 마한이 530년까지 존속했다는 학설이 학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통설을 따르는 견해는 여전하다. 최근 영암군 주최로 열린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지정 학술대회'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되풀이 됐다. 쌍무덤 금동관도 백제의 하사품이라는 전형적 견해다.

반면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는 "신촌리 금동관은 백제보다는 초화형 입식(草花形 立飾·관의 테두리 위에 세운 꽃모양 장식) 등에서 대가야계 요소가 포착되고 있는 등 백제와 동질성 보다 이질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암 내동리 금동관모 편은 신촌리 9호 금동관과 동일 계통이며, 영암 내동리 세력은 백제 중앙과 관련이 없는 독자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견해는 '현지(마한 지역)에 살던 장인 집단이 금동관 형태를 모방해 현지에서 제작했다'는 김낙중 전북대 교수의 자체 제작설과도 맥이 닿아 있다.

영암 내동리 금동관의 진가는 이 지역 마한사를 재정립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데 있다. 영암군이 이번 학술대회에 그치지 않고 백제의 마한 병합 시기, 금동관의 제작 주체 등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우리 지역 고대사를 밝히는 노력을 지속했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